

### 대선주조, 신제품 '부산' 출격 창립 96주년 지역명으로 승부

함께 팔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부산'.

부산광역시의 대표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15.7도의 갈콤함에 '같은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부산'의 부드러운 맛을 구현한 신제품 '부산(釜山)'(사진)을 전격 선보인다.



대선주조는 창립 96주년을 맞아 지역의 이름을 내건 신제품 '부산(釜山)'을 전격 출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히 신제품 '부산'은 단순한 주류 제품을 넘어 96년 세월 동안 부산의 골목과 일상을 지켜온 대선주조가 시민들과 함께 숨 쉬고 성장하기 위해 내놓은 역작이다.

부산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부산'은 최근의 저도주 트렌드를 반영해 15.7도로 출시된다. 이번 제품은 대선주조만의 독보적인 숙성 공법을 적용해 소주 본연의 맛에 집중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신제품에 대해 "같은 무심한 듯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부산 사람처럼 첫맛은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지니면서도 끝맛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최적의 밸런스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패키지는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게감과 품격을 시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라벨에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힘 있는 붓글씨체로 '釜山'을 새겨 넣어 부산이 가진 묵직한 존재감과 정통성을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라벨 왼쪽에는 '메이인 부산' 문구를 넣어 부산 대표 향토기업 제품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제품은 '지역 상생'과 '환원'에 방점을 찍었다.

대선주조는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와 환원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팔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부산=김종창기자 jckim@skyedaily.com

### 양산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1인당 연 20만 원... 2000명 혜택

경상남도 양산시가 올해 19~20세가 되는 2006~2007년생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용권 형태로 발급된다. 발급된 포인트는 NOL티켓, YES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전시·영화 예매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분야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전시 등이며 팬미팅이나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며 '청년 문화 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민 기자 duck8421@naver.com

# 부산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개최 수출용 신형연구로·과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 조성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육성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27일 기장군 장안읍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중복 기장군수, 시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은 방사선 연구·의학·산업이 융복합된 첨단 집적지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 육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부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 거점이다.

시와 기장군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공사 착공, 수출용 신형연구로 부지조성 완료,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축공사 완료, 과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준공,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부산형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중입자 치료센터,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설, 과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이 구축 및 조성 중이며, 관련 기업들도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부산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확충되고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인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첨단산업 집적지이자 전력반도체 기반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전남도 '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출범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400만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전라남도는 특별전담반이 12일 발표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 명 인구 유입과 450조 원 규모 투자유치를 목표로 핵심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달 25일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국·일자리투자유치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건설교통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해 실국별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기업유치 계획을 공유하고 유치 핵심 앵커기업 선정과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담반은 반도체·우주항공·미래모빌리티·농업 인공지능 전환(AI) 등 전략

## 킥오프 회의 개최... 실국별 핵심 앵커기업 선정 등 논의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 연계 450조 목표

분야의 핵심 타깃기업을 선정해 접촉하고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실국별 책임기업

에 대한 접촉·상담·현장방문·투자검토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임지·전력·용수·인력 등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전담반에서 신속히 조정하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산업단지 조성·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양당기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하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 부산시 "암남동 태풍 피해 걱정 뚫"... 방재호안 정비 추진

### 1351억 투입 8~10m 호안 설치 매립 유후 부지 친수공간 조성

부산광역시가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 남향체육공원에서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공한수 서구청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기존 낮은 호안 높이로 인해 태풍 내습 시마다 발생하는 월파 피해를 예방하고 내륙 침수 및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351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서구 서방파재~송도해수피어~거북섬까지 약 1000m 구간에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서방파재~송도해수피어 500m 구간 462억 원이 확보돼 2018년부터 시작해 2022년에 사업을 준공했다.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조감도. 부산시

이번 2단계 사업은 송도해수피어에서 송도해수목장 거북섬까지 약 500m 구간에 889억 원 예산으로 3년간 연차별 투입되며,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은 기설치된 1단계 호안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시설물 파손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매립지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친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은 해안변 호안(테트라포드)과 인근 신축건물 사이에 해안도로(등대로) 외 별다른 완충시설이 없어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침수 피해에 항시

시달려 왔다. 특히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월파로 인해 해안도로와 횡단, 아파트, 숙박시설 등이 침수되어 큰 재산피해와 손실을 입었다.

이번 공사로 전체 호안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매립 확장된 호안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022년 준공된 방재호안 1단계 구간은 서구청에서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멀티운동장 등 공간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서구 암남동 등대로는 남측으로 송도해수목장과 송도해수스케이플카, 천마산터널, 남향대교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며 "이 지역에 방재호안 정비를 추진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부산교육청, 해양수도 핵심인재 양성 박차

### 해수부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지원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청에서 동남권 해양수도 부산의 지역정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육

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협약에는 부산교육청-해양수산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HJ중공업-경남공과가 참여해 경남공고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및 지역정주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동남권

해양수도 핵심산업 인재 양성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 및 관련 기업 발굴, HJ중공업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등이다.

부산=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홍보 포스터. 전라남도

## 전남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전국 최다

### 고흥 등 6곳 확정... 강진 '반값여행' 정부 선도 모델

전라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6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은 고흥·강진해 남영암영광·완도가 선정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거뒀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지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1인 최대 10만원(2인 이상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7억 원을 매칭해 총 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 가맹점 매출 증대는 물론 체류 일수 확대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은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반값여행' 정책을 정부가 제도화한 것으로 전남이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공모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략적으로 준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2026 전남 섬방문의 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삼·해안 특화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방문이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미경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라며 "체류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정착시키고 인구감소 지역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광주=하병수 기자 hbs@skyedaily.com